

[TV]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사이버 마약’ 실제 파헤친다

오늘 밤 10시 KBS 1TV ‘추적60분’ 신종 마약 ‘아이도저’ 실제 분석

KBS 1TV ‘추적60분’은 6일 오후 10시 ‘사이버 마약’으로 불리는 ‘아이도저(I-Doser)’에 대해 집중 파헤친다. 20대 남성 하모씨는 요즘 ‘아이도저’에 빠졌다. ‘아이도저’란 MP3 파일을 듣기만 하면 실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신종 마약이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이것을 접한 하씨는 하루에 2~3번씩 혼자 있는 공간에서 MP3 파일을 들을 정도로 중독자가 됐다. ‘아이도저’는 양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해 뇌파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7~13헤르츠, Hz)와 지각과 꿈의 경계상태로 불리는 세타파(4~8 Hz), 긴장, 흥분 등의 효과를 내는 베타파(14~30 Hz)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사실상 환각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것. 전문가들은 뇌파에 영향을 주는 MP3 파일이 마약처럼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고, 뇌가 발달하는 시기의



청소년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이도저’를 사용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도저’는 중독성이 없다는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만 2만여 명일 정도로 퍼진 ‘아이도저’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채 출신 탤런트 김주환

KBS ‘집으로 가는 길’ 출연

KBS가 5년 만에 공채 탤런트를 선발하면서 자사 드라마에 이들을 한 명씩 출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음으로 비중 있는 배역을 따낸 행운아가 탄생했다. 5일 KBS에 따르면 KBS 공채 탤런트 21기 김주환(28)이 KBS 1TV 일일극 ‘집으로 가는 길’에서 주인공 현수(이상우 분)와 수인(장성영) 사이를 방해하는 악역으로 캐스팅돼 12일개부터 등장한다. 김주환이 맡은 배역은 수인의 전 남편 황성태. 수인이 가진 아이의 친부로서, 간간 간간하게 진행되던 ‘집으로 가는 길’ 최초의 악역이기도 하다. 공채 탤런트들은 대개 선발된 후 한동안 단역으로 연기 경험을 쌓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부터 주인공 역할을 맡는 것은 드물다. 한편 이 드라마에는 안희정도 새로 투입됐다. 안희정은 민수(심형탁)의 극성스러운 장모 숙자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Go board game analysis section titled '최초의 전투개시' (First Battle Start) with a board diagram and commentary on move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featuring a weekly theme and practice exercises.